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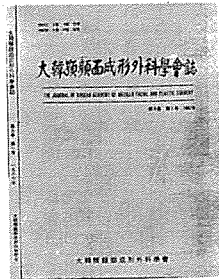
학술분야소식

◎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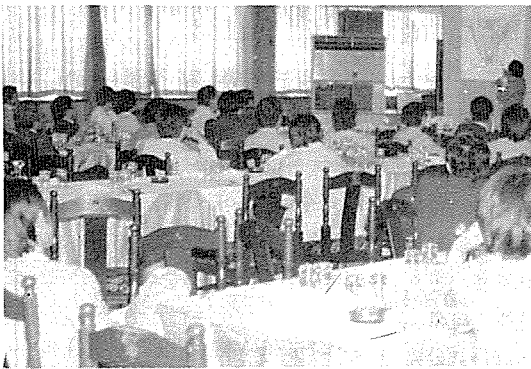
大韓顎顔面成形外科學會(회장:李相喆)는 제26회定期總會를 지난 21일 오후 4시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했다.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총 1천3백81만9백4원의 87년도 예산안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원자력병원의 김기환선생의 「두뇌부종양의 전산화 단층촬영술」을, 경희치대 안희영교수가 「CO² Laser in Head and Neck Surgery」에 대하여 특별강연했고, 서울치대 민병일·김명진·강상규교수의 「porous high density polyethylene을 이용한 악안면경조직결손부의 재건술」 등 13개연제의 구연발표가 있었다.



(李相喆회장과 학회지 제9권1호)



(제26회 정기총회장면)

◎ 대한치과이식학회 정기총회 개최

- 총예산 1,500여만원 원안대로 통과
- 88국제임프란트 학술대회 예산 6,000여만원과 사업계획 승인

대한치과임프란트학회(회장:金鴻基)는 지난 3일 프라자호텔 회의실에서 198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500여만원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자리에는 申旻澈치협회장을 비롯 前과기처장관 金基衡씨, 한국공업연구소 全炳植소장이 참석하는 등 의용공학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었다.



(치과이식학회 정기총회장면)

金鴻基회장은 “人工骨, 人工齒牙, 人工齒冠의開發로서 인류생명 연장을 위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研究心を 발휘하여 醫用工學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와 공업시험소등 유관 연구기관과 제휴해서 첨단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는 요지의 개최사가 있었다. 이어 임프란트 학회 발전에 공이 큰 한양대의대 치과과장 劉光熙교수에게 “임프란트 학술대상”이 수여되었으며 1988년도에 개최예정인 국제임프란트학술대회를 위한 6,000여만원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

크고 이 대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준비작업이 구체화되었다.

이어 벌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일본대학 치학부에 柳澤定勝(Yanagisawa) 교수의 “일본치과계의 인공골이식의 실제”와 한국과학기술원 李在英박사의 “인공치아와 의용생체공학”에 대한 특별강연은 참석 회원에게 의용공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기도했다.

강연이 끝나고 「W & H, Ebauches 그중 Blade 임프란트의 식립」에 관한 비디오가 상연되어 알차고 값진 총회를 마무리했다.

◎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 성료

대한치과의사학회(회장:金正均)는 지난 11일 서울대치대 1층 세미나실에서 198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80여 만원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金正均 회회장을 만장일치로 유임시켰다.

동 학회는 부회장 및 감사로 1명씩 두기로한 정관을 개정, 각각 2명씩 늘리기로 함으로서 부회장에 李丙台, 金官興 兩氏를, 감사에 金知浩, 李時雨氏를 각각 보강했다.

총회와 함께 열린 학술집담회에서는 임경빈씨의 「조선휘학의 서양식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 大韓齒科補綴學會 李東燮 회장 燮 제16회 協會大賞(공로상) 수상

지난 18일 광주직할시 소재 신양파크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바있는 치협 제36차 정기대의원 총회석상에서 李東燮박사가 금년도 제16회 협회대상(공로상)수상했다.

치협은 원로회원과 치협임원등 7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李東燮박사를 제16회 협회대상(공로상)수상자로 결정한바 있다.

李박사는 43년 경성치전을 졸업하던 해부터 63년까지 연세대치대에 재직하면서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61년에는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또한, 64년 치협부회장, 65년 제5회 아태지구치과연맹회의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67년 종로지구치과의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치과계의 발전에



〈제16회 협회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李東燮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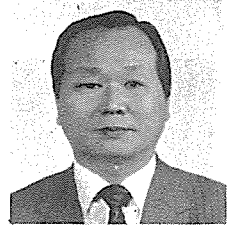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지난 85년이후 두번째로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을 맡고있으면서 보철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울대치대 金明國교수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제20회 「과학의날」맞아 치과인으로는 최초로.

서울대치대 교수인 金明國 한국전자현미경학회 회장이 제20회과학의날을 맞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金明國교수〉

지난 21일 중남 대덕 연구단지에서 거행된 제20회 과학의날 기념식석상에서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게된 金明國교수는 치과인으로서는 최초로 보사부나 문교부가 아닌 과학기술처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金明國교수는 구강해부학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 특히 85년이후 한국전자현미경학회 회장으로서 매년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치의학뿐 아니라 생물학, 공학, 의학, 농학, 수의학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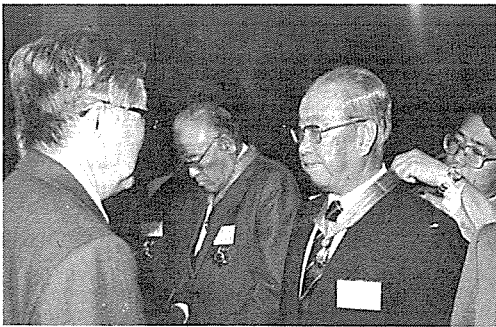
또한 金교수는 58년 서울齒大를 졸업한 이래 29년동안 기초학(구강해부학)분야에 헌신하고 70편의 논문을 국내외학계에 발표하는등 정력적인 연구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서독 막스 프랑크뇌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동안 미개척분야인 뇌의 미세구조에 관한 전자현미경적 및 전자현미경적 자기방사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명국교수의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58년 서울齒大 졸업 ▲64년 서울齒大에서 의학박사학위 취득 ▲78~79년 서독 막스프랑크 뇌연구소 연구원 ▲74~82년 대한구강 해부학회회장 ▲80~82년 치협부회장 겸 학술위원장 ▲84~86년 IADR 한국지부 회장 ▲85~현재 한국전자현미경학회 회장 ▲61년 이후 서울齒大에서 교수로 재직중.

金周煥대한구강보건학회장 第15回 保健의날 국민훈장 동백장 受賞

第15回 「保健의 날」 기념식이 지난 7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李海元보사부장관을 비롯, 申旻澈齒協會長, 李贊赫국회보사위원장, S·샘플린 세계보건기구(WHO) 주한대표대리등 보건관계 인사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사회부와 서울시 주최로 열렸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김주환회장)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구강보건 증진에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여온 金周煥韓國口腔保健協會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고, 文太俊대한의학협회장이 국민훈장무궁화장을, 金生基영진약품대표이사 가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하는등 국민훈장 8명, 국민포장 6명, 대통령표창 14명, 국무총리표창 17명, 보사부장관표창 229명을 포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215명이 각종 훈·포장을 받았다.

국민구강보건증진에는 노력해온 김주환 이사장은 서울치대학장과 병원장 재임시 구강진단학 교실과 예방치과학교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구강보건제몽과 예방사업을 위해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 보사부에 정책자료로 제공했으며,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무료진료,

전국도서벽지등 무치의지역에 대한 무료치과진료를 꾸준히 벌여왔다.

崔翔默교수(서울치대) 第8回 齒科醫療文化賞 수상

치협은 정기이사회에서 公報委員會가 추천한 최상묵교수(서울대齒大)를 올해의 치과의료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하고 지난 4월18일 광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했다.

최상묵교수는 79년 치협公報이사를 맡아 기관지의 질적 향상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지난 73년 서울치대와 연세치대학생 70여명으로 구성된 치과인들의 순수 아마튜어 관현악단인 「덴탈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벌이는등 치료의료문화 창달과 치과계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치과의료문화상은 77년 치과계言論暢達을 통해 치과의료인의 권익향상과 치협기관지 발간사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제정되었다.



(사진은 치과의료문화상을 수상한 최상묵교수)

각종치과재료일절

남문치과재료상사

대표 김 수 재

서울·중구 봉래동 1가 132-1

☎ 753-6639